

31,829 명의 근로자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광산 및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“문경 세재 구비구비 고갯길”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 산간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다. 따라서 밀집되어 있는 사업환경을 가진 여타 기관에 비해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기에 몇 배의 노력과 경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'85년도 157개 사업장에 5,914명 실시한 것으로 보아도 1개 사업장에 약 40명꼴이라는 영세중소업체임을 알 수 있다.

#### 4. 사업추진방향

-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

당 병원관내 특수검진대상자의 약 85%가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관계로 주로 진폐증 및 직업성 난청에 대한 질병발생의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진과 예방대책에 집중적 노력을 하여 지역내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킬 방침이다.

- 직업병 예방교육 강화

모든 질병은 본인이 지대한 관심과 예방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대의 예방책인 바 이러

한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종 세미나, 건강교육 및 사업장 지도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.

-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로 산업보건 기술향상

산업보건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기타유해부서 근로자들에 대한 효과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내 산업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와 대학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책임검진제 확립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.

#### 5. 인사말

지리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업장에 책임과 성의있는 독려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도를 높혀 지금까지 본원의 산업보건사업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와 안동출장소 소장님과 근로감독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들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.

## 협 회 소 식

### '86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 성황리 개최

○ 협회 '86년도 정기총회가 2.28일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노동부 한 진희 차관을 비롯하여 대의원 및 보건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결산 및 예산안과 정관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부의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.

- 한편 총회전 개최된 특수검진인정기준 및

방법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많은 검진기관과 보건관리자들이 참석하여 근로자 검진에 있어서의 기술 및 제도적 개선요구와 질의등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.

○ 반면 총회 폐막전에 가진 전체 토의시간에 많은 대의원들이 일반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,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, 담당자의 역할 및 권리증대, 회원들에 대한 실무교육강화등을 강력추진하여 줄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여 협회에서는 동문제를 금년도 중점연구사업으로 착수할 방침이다.

## 정기이사회 개최

○ 86년도 정기이사회가 총회 전날인 2.27일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되어 8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8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.

○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조직강화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관리자 중심의 회원대상범위를 산업위생이나 산업간호분야까지 확대시키자는 기본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산업보건학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과학회를 두어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음



## 노동부, 당협회 감사 실시

○ 노동부는 정기감사계획에 의거 당 협회에 대한 감사를 2.13~2.22 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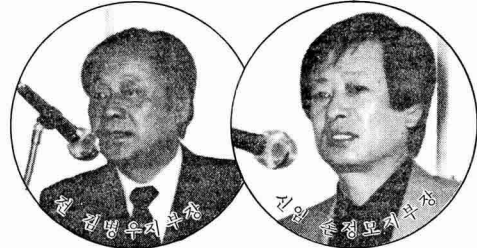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감사는 협회 본부와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협회의 기능 및 목적사업수행에 대한 제도 및 운영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.

## 조규상 회장, WHO의학 연구자문위원회의참석

서태평양지구 세계보건기구 의학연구자문위

원인 당 협회 조 규상 회장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東京에서 개최되는 WHO의학연구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다. 동 위원회에서는 매년 WHO의 연구과제를 토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며, 금번 회의에서 조 회장은 아세아에 있어서의 산업보건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한다.

## 전남 지부장 임원 개선



○ 당 협회 전남지부는 지난 2.1일 86년도 정기총회시 전임 김 병우 지부장의 사임에 따라 신임 지부장으로 손 정모 (손정모 정형외과 원장) 씨를 선출하였다.

○ 손 정모 신임 지부장은 63년 전남의대를 졸업, 현재 한양의대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민성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면서 당 협회 전남지부 대의원 및 사업부장으로 산업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왔다.

## 전남의대 김병우교수, 공로패 수여

○ 당 협회 조 규상 회장은 지난 2.1일 전남지부장을 사임한 김 병우 전남의대 교수에게 정기총회시 공로패를 증정하였다.

○ 김 병우 교수는 1975년부터 1986.2월까지 만 10년간을 당협회 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산업보건사업의 기초조성과 기술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특히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기술지원등으로 검진의 정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.